

# SK이노, 배터리사업 흑자 전환 “E&S 합병 시너지 창출 가속화”

3분기 매출 17.6조, 영업손실 4233억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손실 등 영향  
“주주환원, 지속 확대해 나갈 것”

SK이노베이션 산하 배터리사업이 수익성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분기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합병법인이 출범함에 따라 향후 재무안정성과 수익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은 2024년 3분기 매출액 17조 6570억원, 영업손실 4233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1조 1422억원, 영업이익은 3775억원 감소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사업에서의 수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관련 손실 및 주요 화학제품의 스프레드 축소 등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4분기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완화 기대감으로 정제마진이 회복세를 보이고, 배터리사업도 고객사의 북미 공장 가동 및 신차 출시 계획 등으로 배터리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SK이노베이션은 SK E&

S와의 합병을 완료했다. 아태지역 민간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한 SK이노베이션은 강화된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해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해, 합병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2027년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및 주주환원율 35% 이상을 달성할 예정이다.

석유사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및 중국 석유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유가와 정제마진이 하락해 전 분기 대비 7608억원 감소한 영업손실 6166억원을 기록했다. 화학사업은 2분기 진행된 파라자일렌(PX) 정기보수 종료에 따른 판매 물량 증가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품 스프레드 하락에 따른 재고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1138억원 감소한 영업손실 144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유탄사업은 미국, 유럽시장의 판매량 증가와 마진 개선 효과로 전 분기 대비 220억원 증가한 174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석유개발사업은 판매 물량의 소폭 감소와 유가 하락에 따

른 복합판매대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110억원 감소한 131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배터리사업은 3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1227억원 감소한 1조 4308억원을 시현한 가운데, 영업이익 240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10월 SK이노로 독립법인 출범 이후 첫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고단가 재고소진, 헝가리 신규 공장 초기 랩업 비용 감소 등 전 분기 대비 저해 효과와 전사적 원가 절감 활동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2분기 대비 4841억원 개선됐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3분기 AMPC 수혜 금액은 전 분기 대비 510억원 줄어든 608억원을 기록했다. 소재사업은 주요 고객사 판매 물량이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돼 영업손실 740억원을 기록했다.

김진원 SK이노베이션 재무부장은 “SK E&S와의 합병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시너지 창출 가속화 등을 통해 주주환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싼타페 하이브리드, 日 경쟁모델 제쳤다

현대차 아우토 자이툰 비교평가 1위

현대자동차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 하이브리드가 유럽 시장에서 일본 기술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싼타페 하이브리드’가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거진인 ‘아우토 자이툰’이 실시한 하이브리드 SUV 비교 평가에서 토요타와 닛산, 혼다 등 일본의 하이브리드 경쟁 모델을 따돌리며 경쟁력을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토 자이툰은 최근호에 게재한 비교 평가에서 싼타페를 포함해 토요타 라브4, 닛산 엑스트레일, 혼다 CR-V 등 4개 차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비교했다. 평가 항목은 ▲차체 ▲주행 편의 ▲파워트레인 ▲역동적 주행 성능 ▲친환경·경제성 등 5가지다.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5가지 평가 항목 중 ▲차체 ▲주행 편의 ▲역동적 주행 성능 등 3개 항목에서 경쟁 모델을 앞서 총점 3005점을 기록했다. 2위인 라브4(2939점)를 66점차로 제쳐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거주성, 트렁크 용량 및 적재 중량, 안전사양, 품질 등을 평가하는 차체 부문에서 730점을 받았다. 이는 2위인 엑스트레일



현대차 싼타페 주행모습.

(658점)보다 72점 높은 점수다.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시트 안락감, 정숙성, 서스펜션, 공조 시스템 등을 평가하는 승차감 부문에서도 723점을 받아 2위 엑스트레일(694점)을 29점차로 따돌렸다.

싼타페 하이브리드가 일본을 대표하는 하이브리드 3개 차종과의 비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성장 중인 유럽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현대차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 분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브랜드가 치열하게 승부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싼타페가 하이브리드 경쟁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상품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로봇·장인, 3000개 항목 점검… 안전주의 빛나

### 리포

#### 벤츠 헤델핑겐 공장

배터리 생산에 사용된 모든 부품 기록  
“안전성 인증… 30년까지 정보 확인”

“모든 부품이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30년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 헤델핑겐의 메르세데스-벤츠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만난 프랭크 프록스 팀장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모든 부품의 기록을 남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품을 역추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메르세데스-벤츠의 안전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배터리 생산공장은 1만6500㎡의 부지에 조성됐으며 48개의 스테이션과 50여개의 협동로봇, 200여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EQS와 EQE의 10개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한다.

이 곳에서는 벤츠의 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공장에 들어서자 무인운반로봇(AGV)이 공장 곳곳을 누비며 부품을 운반했으며 각종 센서와 협동로봇이 쉴 새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은 모두 3년 이상 벤츠에서 운영하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들도 작업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제품을 만들고 있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메르세데스-벤츠 헤델핑겐 배터리 생산 공장



메르세데스-벤츠 헤델핑겐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배터리 팩을 생산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확보하는 품질 보증 공정이 눈길을 끌었다. 배터리가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출고되기 전 누수 테스트와 전기 시험을 포함해 모든 기능을 최종 검사한다. 배터리팩 냉각수나 냉매, 셀 전해질 등의 누출이 있는지 검사하고 작은 나사와 슐링 등 완벽하게 연결됐는지 등을 점검하는 항목만 3000여개에 달한다. 전기차 배터리팩 1개를 생산하는데 4시간 가량 소요된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논란이 된 벤츠 차량의 배터리팩에 적용된 부품의 정보도 이곳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벤츠 관계자는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해당 모델의 부품 정보도 이곳에서 보관되어 있었고 화재 사고 이후 조사를 위해 모두 전달했다”고 말했다. 벤츠 본사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벤츠가 전기차 시대 안전성은 물론 배터리 기술 개발부터 생산, 재활용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지난달 21일 개소한 배터리 재활용 공장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벤츠 배터리 개발 총괄인 우버 켈러 박사는 “벤츠의 DNA를 담고 있는 벤츠만의 고유 배터리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셀 뿐만 아니라 향후 배터리 팩과 차량쪽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투트가르트(독일)·양성운 기자 ysw@

##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SE’ 2차 판매

통신3사 온라인 몰 동시 판매

삼성전자가 새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SE)’의 2차 판매를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4일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의 2차 판매가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 몰에서도 동시에 판매된다.

앞서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은 278만9600원이라는 높은 출고가에

도 지난 1차 판매에서 10분도 되지 않아 완판됐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온라인 몰에서는 재고 부족으로 판매가 진행되지 않았다.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은 두께와 무게가 각각 10.6mm, 236g으로 역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제품이다. 지난 7월 공개한 ‘갤럭시 Z 폴드6’보다 1.5mm 얇고 3g 가볍다. 또한 2억화소 카메라와 16GB(기가바이트) 메모리를 탑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S펜은 지원하지 않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기아, ‘더 2025 K5’ 출시… 안전·편의성 강화

엔트리 트림 ‘스마트 셀렉션’ 추가

기아가 2025년형 연식변경 모델인 K5를 4일 출시했다.

기아는 ‘더 2025 K5’ 전 트림에 ▲선바이저 LED 조명 ▲글로벌 박스 LED 조명 ▲뒷좌석 발매트 고정 고리 ▲실내 소화기 등을 기본화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프레스티지 트림(2.0 LPI 렌터카 모델 제외)부터는 기존에 선택사양이었던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가죽 및 열선 스티어링 휠 등을 기본으로 적용했다. 또한 엔트리 트림인 ‘스마트 셀렉션’을 새롭게 추가해, 진입가격을 낮췄다.

기아는 장시간 운행이 잦은 영업용 차량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 현재 택시로도 판매되고 있는 2.0 LPI 렌터카 모델의 상품성도 강화했다. 2.0 LPI 렌터



더 2025 K5 전측면

카 모델의 엔트리 트림에는 장시간 운전의 쾌적함을 위해 앞좌석 통풍 시트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하고 운전석 파워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이 포함된 콤포트 패키지를 선택 사양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5년형 K5의 판매 가격은 2.0 가솔린 모델은 2766만원부터, 2.0 하이브리드 모델은 3250만원부터 시작된다.

/양성운 기자